

# ‘민간인 사찰’ 연일 부실수사 의혹 ‘시끌’

### 원희룡도 “새 증거 나왔다면 새 수사해야” 檢 “잇선 수사할 만한 구체적 증거 없다”

국무총리실이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두 달여 동안의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수사나 특검수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했다”는 입장인 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국정감사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팀 직원에게 ‘대표폰’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의

혹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 ‘누락·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BH 지시’ 메모와 관련해 정치권은 이 메모가 불법 사찰에 가담한 지원관실 원도 전 팀원의 수첩과 지원관실 컴퓨터의 데이터 등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불법 사찰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폰’ 논란에서도 정치권은 청와대 최고 행정관이 증거인멸 당일 휴대전화를 개설해 지원관실 장모 팀원에게 건넨 의도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는 하

디스크의 정보를 지우는 ‘디가우저’라는 전문장비를 사용해 지원관실 컴퓨터에 남아있던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 인멸과 관련한 혐의를 지목한 검찰은 “증거가 나왔는데, 또는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덮고 가면서 다른 사건을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지금이라도 검찰이 엄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잇선의 존재 여부도 밝히려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잇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잇선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불교방송 ‘전경운의 아침저널’에 출연, 불법사찰과 ‘대표폰’ 논란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

가수사가 되든, 다른 무엇이 되든 철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증거가 나왔는데, 또는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덮고 가면서 다른 사건을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지금이라도 검찰이 엄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잇선의 존재 여부도 밝히려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잇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잇선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불교방송 ‘전경운의 아침저널’에 출연, 불법사찰과 ‘대표폰’ 논란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

# 한·미정상 “FTA, 시간 더 필요”

### 최고기 수입 확대 이견... 조속 타결 공동 노력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추가 협의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빠른 시간 내에 타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 회담 및 오찬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했으나 세부 사항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양국 장관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장관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우리는 한미 FTA의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그것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대로 한다면 양국 국민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한미 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미국 측의 자국산 최고기 수입확대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이 “최고기 문제는 FTA와는 별개로 절대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

려졌다.

북한 핵 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동북아 변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만일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하면 한국과 미국, 전세계가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TA 재협상 말라” 11일 오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 FTA 재협상 반대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대표 등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상수 “글로벌 균형성장 성과 기대” 손학규 “형식 구매 말고 국익 챙겨야”

### 정치권, G20 성공 기원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가 1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정치권은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 위원회에서 “60년 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이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의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20에서 우리가 제안한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개혁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돼 글로벌 균형성장을 위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타났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새 판짜기를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는

G20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을 스스로 축하하고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G20 회의를 개최한다는 분위기에 들떠 있거나 형식에만 구애되지 말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면서 “특히 특혜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상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G20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한미 FTA를 양보했다는 국민적 의식이 있다”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G20 회의는 다른 때와 다르게 세계 금융위기와 환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걸음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당 우위영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가 처음 열렸을 때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정자 금융규제 강화는 흐지부지됐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빈곤 시달리는 지구촌에 웃음을”

### 세계 정상-여야 의원 국회서 빈곤퇴치 포럼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 여야 국회의원 11일 국회에서 포럼을 갖고 지구촌 빈곤퇴치의 각오를 다졌다.

여야 국회의원 113명의 모임인 ‘국회 유엔-새천년개발목표국 (UN-MDGs) 포럼’(공동대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회의를 개최, 유엔이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빈곤의 사슬을 끊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전환된 우리의 책임은 더 크다”며 “오늘 포럼과 G20정상회의를 통해

빈곤과 질병에서 시달리는 지구촌에 눈물 닦고 웃음을 찾는 휴머니즘이 넘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유엔 MDGs에 대해 “좋은 정책과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현명하게 투자하고 재정적 재원을 지원하면 2015년까지 달성은 문제없다”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는 MDGs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함을 일깨워줬다”면서 “이 점에서 G20 정상회의의 개발 어젠다 설정은 시의적절했다”고 평했다.

웅연 편 중 베트남 총리는 “MDGs 제정 후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결과가 도출돼 수억명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비정부기구(NGO)와 체계에서도 개도국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안타깝다” 野 “사필귀정”

### 한미 FTA 합의 실패 반증

여야는 11일 한국과 미국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 FTA(자유무역협정) 합의에 실패한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으나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현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FTA가 G20 정상회담 전에 타결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양국 정상이 밝힌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

평에서 “한미 정상은 FTA 타결이 이뤄졌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타결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더 줄 것이지, 아니면 덜 줄 것인지를 조율하고 있다면 즉각 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의 한 양돈농가에 방문, “민주당 등 야 5당이 비준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하고 국민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정부도 타결을 보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나로호 3차 발사 준비 착수 산·학·연 점검위 구성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3차 발사준비가 사실상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공적인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나로호 발사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준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나로호 발사 점검위원회는 상단시스템 점검소위, 발사운영 점검소위를 두고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우주,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안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복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원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아이엘리시아**

PREMIUM BUFFET MELYSIA

예약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